

이번의 개정 이유는 민원의 소재가 되는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난번 「대한 화재」의 프로판 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가스설비의 안전을 위해 일부 시설을 보완 및 강화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동력 자원부령 제 46 호-

별표 4 중 7 배관란의 가. 배관(9)호중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실 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가스가 누설될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별표 5의 13 호중 “(1)호 내지 (12)호”를 “(1)호 내지 (13)호”로 하여 동호를 14 호로 하고 동표에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하실 및 지하 상가 등의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누설될 때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 또는 가스 경보기를 설치할 것.

3. 國際十進分類表 (UDC)

국제 십진 분류표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는 모든 분야의 지식과 모든 기록 정보의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十進式 列舉型(엄격히 말하자면 2개 이상의 단일 주제의 조합이 가능하므로 분석 합성의 수법도 포함되고 있다) 一般分類表이다. 다만 도서 자료의 排架用으로는 사용이 적은 편이나 대규모의 특수 도서관에서는 분류 목록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情報管理上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분류표가 정보 관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① 분류표의 전개와 改訂이 각국 이용자의 요망에 따라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 분류표로 인정받게 된 것. ② 多次元的 分類 (Multidimensional Classification)를 할 수 있다는 것 ③ 十進式이 되어 이용에 편리하다는 것 ④ 과학 기술 분야가 다른 분류표에 비하여 상세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發展

1895年 벨기에 사람인 Paul Otlet과 Henry La Fontaine이 설립한 국제 서지 학회의 최초의 사업은 전세계에 걸쳐 출판된 모든 자료의 종합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同學會에서는 종합 목록의 원고를 분류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류표를 작성하기로 하고 새로운 분류표의 기호는 유일한 국제 어인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구성하되 십진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또한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Dewey의 십진 분류법 (Decimal classification)을 기초로 전세계의 지역과 전학문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분류표를 작성키로 결의하였다. 1899년에 본 분류법의 특징인 조합식 기호를 소개한 “manuel de la Classification Decimale”를 간행하였고 이어서 1905년에 UDC의 第1版을 불란서에서 출판하였다. 이후 인문 과학과 사회과학분야는 Otlet과 La Fontaine이 그리고 자연과학과 응용과학분야는 F. Donker Duyvis 외 약 40人の 협력자가 편집한 第2版 (3권)을 1927 ~ 1933년에 걸쳐 불란서에서 출판하였고 또 1934

~ 1951년에 第3版을 독일에서 출판하였다. 이것은 분류표 4권과 ABC順 색인 3권으로 7冊, 1840面으로 되어 있다.

이후 이 3版을 기초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 完全詳細版(Full edition), 中間版(Medium 혹은 Intermediate edition), 簡略版(Abridged edition), 特定主題版(Special subject edition)을 出版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 표준 분류표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UDC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서지학회가 1931년에 IID(Institut International de Documentation)로, 또 IID가 1938년 FID로 개칭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 UDC의 발전과 보급에 많은 공헌을 한 결과이며 현재에도 FID의 중앙 분류 위원회(Central classification committee)는 UDC의 각종 版刊行, 改訂, 機械化 등에 관하여 研究하고 있으며 UDC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發足

지난 1月 한국 산업 경제 기술 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echnology; KIEET)은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提高와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거의 국제 경제 연구원(KIEI)과 本協會가 회원으로 加入하고 있는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센터(KORSTIC)가 통합하여 새로 설립되었다.

KIET는 政府出捐의 研究機關으로 이전의 KORSTIC과 KIEI에서 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 제공하게 될 것이다.

KIET의 설립과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設立目的

○ 產業, 貿易, 技術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조사·연구하고, 수집·분석된 정보·자료의 광범한 보급과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產業 및 技術情報의 總本山役割을 담당하며,

○ 產業構造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輸出擴大를 위한 產業研究의 中心役割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事業範圍

1. 국내외 產業·貿易 및 技術에 관한 각종 動向 및 情報의 寶集·調查·研究
2. 寶集·調查·研究된 情報의 分類·정리·보관 및 보급
3. 企業의 海外進出 및 經營에 관한 相談과 資料支援
4. 政府·產業界·學界 및 他研究機關과의 研究開發 또는 技術用役의 受託 및 委託
5.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前各號에 附帶되는 事業等이다.

※ 협회에서는 적극적인 정보원의 확보를 위해서 연구원(KIET)에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회비는 년 100万원, 작년도는 40万원이었다.